



(주)하림

불법 상표도용 업체 처벌의지 확고

(주)하림(대표이사 김홍국)은 본사 자산관리팀(구 법무팀)이 상반기 상표단속을 벌인 결과, 총 40곳의 업체가 적발됨에 따라 고소 및 경고,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주)하림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상표도용 등의 사례는 총 297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주)하림 제품의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소비자 체감점유율과 실 점유율 간에 4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하림의 점유율은 60~70% 정도이나 본사 생산량과 판매량을 집계해보면 22%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일부 업체들의 상표도용에 따른 결과로 의심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팀은 그동안 각 지역에 주 2~3일 동안 직원을 파견, 불법 상표도용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있다.

이와 관련 자산관리팀 신봉진 대리는 “위반의 정도와 당사제품의 취급현황 등을 검토해 내부 협의 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도용은 심각한 불법행위이나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불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리점주들이 많아 자산관리팀 직원들을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신 대리는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민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상표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 독거노인에게 삼계탕 도시락 배달



(주)하림은 250여명의 독거노인에게 하림 삼계탕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가슴 훈훈한 행사를 열었다.

(주)하림은 말복인 지난 8월 14일 의정부 푸드뱅크(팀장 김남숙), 세기유통(대표 김철환)과 공동으로 사랑의 삼계탕 배달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3본부 동부지점에서 기획하고 3본부 마케팅실에서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 푸드뱅크 소속 15명의 자원봉사자가 세기유통이 제공한 (주)하림의 삼계탕 도시락을 준비하고 배달했으며, 독거노인들은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도시락도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드셨다고 한다.

의정부 푸드뱅크의 김남숙 팀장은 “예전부터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미뤘었다”며 “삼복이 지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돼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함께 도와주신 하림과 세기유통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밝게 웃었다.

■ 상반기 교육만족도 조사, 작년 보다 1.3점 상승

(주)하림은 지난 3월 5일 인간관계론 강좌를 시작으로 막을 연 상반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력개발팀이 상반기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개설된 11개 강좌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4.3점으로 2007 임직원 의식조사의 교육만족도 결과 보다 1.3점 상승,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주입식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참여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고, 타부서 직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유도한 점 등이 만족도를 향상시킨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교육의 수요(Needs)에 대해서는 어학강의의 개설 및 지원 22.9%, 직급별 계층교육 21.5%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인력개발팀은 조사결과 수강생들이 보다 세분화된 교육과 어학, 인터넷 교육강좌 개설 등을 원함에 따라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설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고품격 교육환경을 조성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각 강좌 수료 후 수강생들이 작성한 설문지와 소감문을 분석해 도출됐다.

■ 제14회 식품·기기전시회 참가

(주)하림은 지난 8월 9일~10일 2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4회 식품·기기전시회(전국 영양사 학술대회)에 참가해 닭고기의 안전성과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소비자와 급식관계자들이 닭고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하림 부스는 전시기간



내내 복새통을 이뤘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대구지점 박미경 사우가 닭고기의 특성에 따른 온도관리의 중요성과 닭고기의 취급 요령에 대해 영양사 및 급식 관계자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미경 사우는 이번 발표에서 “닭고기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신선도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닭고기 선택시 외형뿐만 아니라 생산 환경, 유통체계, 등급판정제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급 단백질식품인 닭고기를 안전하게 취급해 급식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영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닭가슴살 시리즈’ 신제품 출시



올 9월 (주)하림은 닭가슴살 시리즈(촉촉한 닭가슴살, 닭가슴살 비엔나, 닭가슴살 후랑크) 3종을 야심차게 선보인다.

닭가슴살을 주원료로 만든 이번 시리즈는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제품으로 보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 출시된 제품이다.

본 제품의 특징은 '촉촉'한 닭가슴살. 맛이 담백하면서도 퍽퍽하지 않아 아채쌈이나 샌드위치, 초밥 등의 음식과 궁합이 딱 맞는다. 또한 닭가슴살 비엔나와 후랑크는 먹기에 간편해 밥반찬 및 간식용으로 좋다.

(주)하림은 '닭가슴살 시리즈'가 비만을 우려하는 성장기 자녀에게 더없이 좋은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총사의 출시에 발맞춰 기존 출시제품인 '닭가슴살 허브햄'과 '슬림 닭가슴살'을 포함한 대대적인 '닭가슴살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오는 10월부터 각종 대중매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발표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광고와 이벤트, 다양한 요리제안 및 요리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주요매장에서 시식 및 판촉, 증정 행사 등 다양한 매장 내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마니커

영양사협회 식품·기기전 참가



(주)마니커(대표이사 한형석)는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대한영양사협회 식품·기기전에 참가해 마니커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마니커는 학교와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마니커 닭고기의 생산시설과 신선도, 인증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판촉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마니커 부스를 찾은 영양사들은 신선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가공품을 보유한 마니커 닭고기 제품에 큰 관심을 갖고 줄을 이어 상담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 기자간담회 개최



(주)마니커는 주요 언론사 경제, 증권담당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마니커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과 부동산 유통화, 핵심사업에 대한 역량집중 등 다양한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서대진 부회장은 (주)마니커의 비전과 닭고기 사업의 전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한 기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참석 기자들은 최근 (주)마니커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는 한편 앞으로 마니커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말로 (주)마니커의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공채 31기 신입사원 현장실습 수료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공채 31기에 대한 입문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나 9월 3일 이들에 대한 사령장이 수여 된다.

지난 6월에 입사한 공채 31기 사원 중 신입사원 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현장실습은 3개월간 축산과 생산, 영업부문에서 각각 1개월간 현장을 체험하고 실무지식을 익히는 과정으로 진행됐는데, 쉽지 않은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전원 교육을 마쳐 9월부터 현업에 배치된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신입사원 모두가 회사를 이해하고 애사심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주)마니커는 앞으로 공채사원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화인코리아

일본 가금육 수출 재개

(주)화인코리아(대표이사 나원주)가 지난해 말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중단됐던 대일본 가금육 수출을 8개월만에 재개했다.

(주)화인코리아는 “일본 정부가 한국산 가금육 수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지난 8월 14일 냉동삼계탕 5톤(3만2,000달러)을 첫 선적했다”고 밝혔다.

또 (주)화인코리아는 9월부터 오리고기 신선육과 냉동육도 추가 수출키로 일본 바이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대일 가금육 수출 재개로 국내 닭고기와 오리고기 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한·미 FTA 체결로 위축된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도 기대되고 있다.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

-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